

[수도권 주요 뉴스]경기도, 파주 임진각 관광지 지 379억원 들여 개발

[CBS노컷뉴스 문철원 기자] ◇ 경기도, 파주 임진각 관광지 379억원 들여 개발

경기도가 379억원을 투입해 파주 임진각과 평화누리 관광지를 개발합니다.

경기도는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습지생태학습원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임진각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 등을 오늘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진각과 평화누리 관광지는 방문객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진입도로가 혼잡한 데다 주변 환경이 열악해 경기북부 대표 관광지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안보-생태체험 융합’ 임진각이 달라진다

경기도, 2018년까지 379억 투입
습지학습원-관광센터 등 조성

경기 북부 최대 관광지인 임진각 평화누리공
원 일대가 종합적인 개발과 정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 경기도는 7일 임진각 평화누리 관광지
확대 개발 계획을 고시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
수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포함해 2018년
까지 379억 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개발을 완
료할 계획이다. 임진각 평화누리 관광지(47만
7894m²)는 1991년 경기 파주시가 조성한 임진
각(9만5000m²)과 2005년 경기도가 지정한 평화
누리공원(1000만4000m²) 중 일부를 통합한 것
이다. 이 일대는 국내외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
이 찾는 대표적 안보관광지임에도 도로나 주차
장, 각종 관광 지원 및 편의 시설, 볼거리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도는 이런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지 확대 개발 기본계획을
2012년 수립하고 이후 환경 교통 등의 영향 평
가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우선 평화누리공원 갈대습지에 습지체험습
원(5만3515m²)을 조성해 가족 단위 휴식공간으
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갈대 및 조류 등
을 살펴볼 수 있는 텍과 탐조대, 휴게공간, 예술
작품 등을 설치한다. 또 어린 학생들을 위해 소

규모 체험습지인 ‘덤벙’을 조성해 야생 습지 동
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체류형 거점시설인 지상 2층, 총면적 2978m²
의 생태관광지원센터도 건립 중이다. 카페와
200석 규모의 실내공연장, 회의 세미나 연회가
가능한 다목적실, 그리고 복도와 2층 동선을 이
용한 전시공간도 마련된다. 현재 공정 75%로
내년 9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 이곳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장도 들어선다. 임진각 관광지
일대 3만2000m²에 450면(캐러밴 글램핑 20%)
규모로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17년 하반기
개장할 계획이다.

6·25전쟁 때 파괴된 경의선 상행선 철로 독
개다리에도 관광시설을 조성한다. 현재 교각만
남아있는데 임진강 쪽으로 100m가량을 철골과
강화유리 등으로 연결해 내년 9월 완공하면 임
진강 일대를 조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부족했던 주차장을 1100면
규모로 조성하고, 관광지 확대에 걸맞은 진입
도로 개선과 부출입로 신설도 내년 하반기에
완료할 방침이다. 이강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
실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임진각 평화누
리 관광지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로서 경기 북부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
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만파식적 萬波息笛

임진각

파천 반대를 부르짖던 신하도 궁궐 호위를 맡은 갑사도 달아나 따르는 사람은 10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피난가던 1592년 음력 4월30일의 모습을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전한다. 이날 새벽부터 피난길에 오른 선조는 파주에서 저녁을 먹다가 한양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밤중에 다시 짐을 싸지만 캄캄한 그믐날 폭우까지 겹쳐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이항복은 과거 이이가 이곳에 화석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이런 때를 대비해 매일 기름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화석정에 불을 지르니 비로소 사위가 드러났고 선조 일행은 화광의 도움을 받아 나룻배를 타고 임진강을 건넜다.

예로부터 임진강을 건너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하류 쪽은 양안이 수직 절벽인 경우가 많아 정해진 곳에서만 도강이 가능했다. 선조가 건넌 곳도 남쪽 임진나루에서 북쪽 동파나루로 가는 외길이었다. 선조는 1년여 뒤 환도하면서 이곳에서 위령제를

지내 목숨을 초개처럼 여긴 충신들의 넋을 달랬다. 이때 선조는 '천우신조로 이 나루로 돌아올 수 있었다(臨津)'고 생각해 강 이름을 신지강(神智江)에서 임진강(臨津江)으로 바꿨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6·25 때는 1만명이 넘는 사람이 이곳을 한꺼번에 건너기도 했다. 1953년 8월3일 휴전협정 이후 1만2,773명에 달하는 한국군 포로는 이곳에 놓인 784m짜리 가설교를 이용해 북에서 남으로 넘어왔다. 지금 임진각에 있는 83m짜리 '자유의 다리'는 가설교가 유실된 뒤 만들어진



관광용이다.

경기도가 임진각 일대를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2018년까지 379억원을 들여 대대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곳은 삼국시대에는 쟁탈의 요소로 격전을 치러냈고 고려 때는 원나라의 침공을 막아냈다. 조선 때는 국왕의 파천을 지켜보고 6·25 때는 중공군의 남하를 저지하기도 했다. 역사의 현장이 오롯이 감동의 서사시로 부활하기를 기대한다. /한기석 논설위원